

# 한국어 부정대명사 ‘남’의 지칭 현상\*

이 한 규  
(경희대학교)

Lee, Han-gyu. 2005. The Reference of the Indefinite Pronoun *nam* in Korea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3(4), 219-234. This paper aims at providing a sociocultural and pragmatic account of the reference of the indefinite pronoun *nam* in Korean.. Socioculturally, the pronoun is claimed to be broadly used to indicate the out-group whose concept goes against that of the in-group in a collectivism-based Korean society. Pragmatically, it has two uses; non-deictic use to refer to any people who do not belong to the in-group, and deictic use to refer to some particular person(s) such as the speaker, the hearer, or a third party. It will be also discussed for what purpose the speaker exploits the pragmatic uses of the indefinite pronoun *nam*.

**Key Words:** sociocultural, pragmatic, collectivism, in-group, out-group, deictic use, reference, indefinite pronoun

## 1. 들어가며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문화적(sociocultural) 측면과 화용론적인(pragmatic) 측면에서 부정대명사 ‘남’의 지칭현상과 쓰임을 분석 설명하는데 있다.

한국어는 다른 언어와 달리 부정대명사 ‘남’의 쓰임이 매우 발달해 있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아래 예(1)에서 보는 것처럼 다양한 지칭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 (1) a. 낚을 배려하는 마음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 b. 낚이 하는 대로 따라 하기만 해라.
- c. 영수는 고집이 세서 낚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
- d. (자기 일기장을 몰래 보고 있는 예술이에게 해미가)

---

\* 이 연구는 2004년도 경희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임.

남의 일기는 왜 보니?

- e. (자기 집일에 자꾸 참견하는 다함을 보고 친구가)  
이 일은 남이 참견할 일이 아니다.

‘남’은 (1a)에서는 누구든지 간에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1b)에서는 청자가 참여할 어떤 사건에 함께 참여하는 다른 사람, 즉, 청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 (1c)에서는 영수 이외의 다른 사람을 가리킨다. ‘남’이 예 (1a-c)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반면, (1d, e)에서는 특정대상, 예를 들면, 화자나 청자를 지칭하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즉, (1d)에서는 ‘남’은 화자인 해미를 가리키고, (1e)에서는 청자인 다함을 가리키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지칭현상을 보이는 ‘남’은 한국 사람들이 실제 대화에서 매우 자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에 대한 연구가 언어학자의 관심 밖에 머물러 있어 그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그리고 국어사전(신기철, 신용철 1981)에 수록된 ‘남’의 의미는 (2)인데, 이런 사전적 의미로는 (1)에 나타난 다양한 지칭현상을, 특히 특정대상을 지칭하는 (1d, e)의 경우를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정대명사 ‘남’을 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또 어떻게 ‘남’의 지칭관계가 결정이 되는지를 사회문화적 측면과 화용론적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 (2) 남: ① 자기 외의 다른 사람  
② 일가친척이 아닌 사람  
③ 아무런 관계가 없거나 관계를 끊은 사람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한국적 집단주의가 ‘남’의 쓰임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즉, 한국적 집단주의 문화에서 내집단(in-group)과 외집단(out-group)을 구분하려는 한국인들의 극단적인 성향으로 인해 내집단을 나타내는 대표적 표현으로서 ‘우리’가 발달했듯이, 내집단의 대립개념인 외집단을 나타내는 대표적 표현으로서 ‘남’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언어는 사회, 문화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매체이기 때문에,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이 한국어를 배울 때, 또는 한국인이 외국어, 특히, 영어를 배울 때, 위 (1)의 예문들이 보여주는 언어현상을 이해하지 못해 실수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배경이 되는 사회문

화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아서 빚어진 결과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 문화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개념으로서 내집단을 나타내는 '우리'에 대한 연구는 있었지만, 외집단을 가리키는 '남'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남'이 한국적 집단주의 문화에서 외집단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발달하였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분석은 2절에서 다루어진다.

화용론적인 측면은 부정대명사 '남'의 지칭현상을 두 가지로, 즉, 지칭대상이 특정인에게 한정되지 않은 비직시적 쓰임(non-deictic use)과 대화 상황에서 특정인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는 직시적 쓰임(deictic use)로 나누고, 이러한 '남'의 쓰임을 한국어 사용자는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또 화자의 발화에서 '남'이 사용되었을 때, 청자는 어떻게 '남'의 지칭을 해석해 별까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화용적 분석은 3절에서 다루어진다.

## 2. 사회문화적 분석

본 절에서는, 한국 사회와 문화에서 왜 '남'이라는 개념이 '우리' 못지않게 중요한 지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사회와 문화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개념인 한국적 집단주의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남'의 쓰임이 이러한 한국적 집단주의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 2.1. 한국적 집단주의

언어사용자들은 자신들의 사회문화적 특질을 자신의 언어에 투영시키기 때문에 한 언어를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 사용자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사회가 집단주의 사회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먼저 집단주의의 보편적 문화 특성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한국 사회 특유의 집단주의 문화가 한국어에 어떻게 자리매김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문화인류학자 호프스테드(Hofstede)는 문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적 가치를 꼽고 있다.<sup>1)</sup> 집단주의란 내집단

---

1) Hofstede는 다양한 문화패턴을 결정짓는 네 가지 요소를 설정하고, 아무리 복잡한 문화라도 이에 의해 분류, 설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 네 가지 요소는 (1) 개인주의-집단주의(individualism), (2) 불확실성의 회피(uncertainty avoidance), (3) 권력거리(power distance), (4) 남성성-여성성(masculinity and femininity)이다. (Samovar & Porter 2001:65-73)

(in-group)과 외집단(out-group)을 구분하는 사회적 틀로서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해주는 내집단(친척, 부족, 조직 등)에 의지하고 그 대신 그 집단에 충성을 다하는 체제이다. 다시 말해, 집단주의는 개인보다 자신이 속한 내집단의 필요, 가치, 목표를 더 강조하고, 내집단이 규정한 사회적 규범과 의무가 개인적 행위에 우선하며, 개인의 신념보다는 내집단과 공유하는 믿음을 더 중시하며, 내집단 구성원들 간에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정체성이란 개인이 속한 집단에 의해 결정이 되며 그 집단은 개인적인 생활까지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주의 사회는 개인보다 늘 집단이 우선시 되는 문화이다.

최준식(1997:35)에 의하면, 지구상에는 집단주의 사회가 개인주의 사회보다 훨씬 많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집단주의는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 '극단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sup>2)</sup> 한국인은 사회에서 혼자 존재하기를 꺼려하고 불안해하여 어떤 집단에 소속되기를 원하고, 그 집단이라는 '우리' 안에서 안도감을 찾는 성향이 아주 강하다.<sup>3)</sup> 이처럼 집단을 형성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은 자기가 소속한 집단 구성원들끼리의 유대감, 동질의식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소속 집단 구성원들끼리의 친밀감, 유대감이 강하다는 건 동일 집단에 소속하지 않은 또는 다른 집단에 소속한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배타적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국적 집단주의는 다른 집단주의 사회보다 내집단과 외집단이 분명한 대립적 구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강한 집단의식을 보이는 한국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내집단)의 구성원들끼리의 동질성, 유대감, 소속감, 친밀감을 강화시키면서 동시에 내집단에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의 구분, 격리를 통한 차별성, 배타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을 자신들의 언어생활에 반영시켜왔다. 소속의식을 높이고 차별성, 배타성을 부각시키려는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한 방법은 두

2) 극단적인 집단주의 성향의 예로 한국인들이 서로의 동질성을 찾아 크고 작은 모임을 만들기 좋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작게는 서너 명이 모여서 만드는 모임에서부터, 크게는 학연, 지연, 혈연으로 결성된 집단들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집단주의 성향은 긍정적인 면에서는, 최준식(1997)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의 경제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어려움에 처했을 때 힘을 모으는 근간이 되어 IMF 때의 금 모으기 운동이나, 수재의연금 모으기, 연례행사인 연말 불우이웃돕기 모금 등과 같은 전국적인 운동으로 나타난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은 정치적 고질인 지역당 문제, 학연, 지연에 따른 사회적 병폐 등을 들 수 있다.

3) 최준식(1997:38)에 의하면, 1인칭 대명사 '우리'란 본래 '(돼지)우리', '울(타리)'의 뜻이라고 한다. 울타리를 만들으로써 우리는 울타리 안과 밖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라고 부르게 되었을 것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설득력 있는 설명이다.

가지가 있다. 자기가 속한 내집단 의식을 강조하는 것이 그 하나요, 다른 하나는 자기가 속하지 않은 외집단 개념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내집단 의식을 강조하기 위해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내집단 표현이 바로 인칭대명사 '우리'고, 외집단 표현이 '남'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집단주의 사회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내집단 개념과 외집단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와 '남'이라는 표현이 발달하였다는 것이다.<sup>4)</sup>

## 2.2. 사회문화 현상 내집단 '우리'

먼저 한국 사람들이 내집단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펴보자. 한국적 집단주의를 이야기할 때 흔히 한국 사람들이 '우리'라는 표현을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사용한다는 점을 어김없이 거론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우리 마을', '우리 학교', '우리 모임'.... 이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가리키는 내집단에 속하는 구성원들끼리의 유대감, 친밀감, 소속의식 등을 도모하고, 동시에, '우리'라는 내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배타성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마을'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마을 사람들을 배제한, 오직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끼리의 공동체의식, 결속 등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적 집단주의의 내집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수의 구성원을 전제하며 사용된다. 그러나 내집단 표현인 '우리'는 복수 구성원이 아닌 단수 구성원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예가 '우리 남편', '우리 섹시' ... 등으로 복수 개념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이다. 왜냐하면, 일부일처제의 한국사회에서 남편이나 섹시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대신 '내'를 사용하여, '내 남편' 이'라고 하면 '뭐 남편은 저만 있나?'하고 눈총을 받기 십상이다(최준식 1997:34).<sup>5)</sup> 이것은 내집단이 비록 집단의 개념

4) 물론 내집단과 외집단을 가리키는 표현이 꼭 '우리'와 '남'이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발화 맥락이나 상황에 따라 '우리'와 '남'이외에도 내집단, 외집단을 나타낼 수 있는 다른 표현 방법이 있다. 다만, '우리'와 '남'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5) 이러한 단수적 용법의 '우리'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 언급이 되기는 했지만(최준식 1997, 남기심, 고영근 1985 등), 체계적인 연구는 윤재학(2003)에서 찾을 수 있다. 윤재학(2003)은 이러한 '우리'의 단수적 쓰임을 근거로 '우리'가 일인칭 단수 '나'의 복수 형태라고 보기 보다는 내집단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록 언어학 논문은 아니지만, 최준식(1977)에서도 '우리' 집단이 내집단이라고 주장한다.

으로 복수 개념을 전제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극단적인 형태로 사용되어, 구성원이 한 사람일 때도 ‘우리’를 사용함으로써 ‘우리’에 포함되지 않은 외집단 구성원과의 차별성을 극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단수, 복수 개념을 포함하는 ‘우리’의 보편적 사용은 ‘우리’가 단순히 일인칭 복수 개념이라기보다는 내집단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다는, 다시 말해서, 한국의 집단주의가 극단적인 형태로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이다<sup>6)</sup>.

### 2.3. 사회문화 현상 외집단 ‘남’

내집단과 외집단을 분명히 구분함으로써 내집단 구성원들 간의 소속의식을 높이고 외집단 구성원들과의 차별성, 배타성을 부각시키려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외집단의 존재를 인식시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적 집단주의에서는 내집단과 외집단이 분명한 대립적 개념으로 발전하였으며 극단적 내집단 개념을 나타내기 위한 한 표현으로서 ‘우리’가 발달하였고, 이것은 내집단의 대립 집단으로서의 외집단 개념을 나타내는 표현의 발달을 유발시켰다. 왜냐하면 내집단 개념의 극단적 발달은 외집단 개념의 보편적 쓰임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고 외집단의 개념이 미약한 상태에서는 내집단 개념이 강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극단적 내집단 개념의 표현인 ‘우리’에 대응하여 발달한 것이 바로 ‘남’이다<sup>7)</sup>.

한국 사람이 흔히 사용하는 말로 구성원의 유대감과 동질의식을 강조하

6) 영어에서도 ‘우리’에 상응하는 일인칭 복수 대명사 ‘we’가 있지만, 이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사용될 뿐 한국어에서처럼 내집단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폭넓게 사용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영어를 사용하는 문화가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주의는 어떤 사회 환경 속에서도 개인이 가장 중요한 구성단위이며, 의존성보다는 독립성을 강조하고, 개인적인 성취를 장려하며, 개인의 독창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는 문화체제이다. 따라서 사람들의 개인적 목표가 자기가 속한 집단에 대한 충성보다도 우선하며, 자기가 속한 집단 구성원들 간의 협력, 조화보다도 경쟁이 오히려 장려되어 개인적인 가치와 생활, 독창적인 능력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사회에서는 내집단 개념을 나타내는 ‘우리’와 같은 표현이 발달하지 않고, 개개인의 독립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인칭대명사가 발달되어 있다. 따라서 영어에서 ‘our husband’는 허용되지 않고, 개개인의 독립성을 반영한 ‘my husband’가 사용된다.

7) 이것은 ‘남’이 쓰일 때 내집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꼭 ‘우리’가 발화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내집단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우리’가 자주 사용되었듯이, 외집단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남’이 흔히 사용된다는 것이다. 내집단과 외집단을 나타내기 위한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도 대화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예로 ‘다른 사람’은 (5)에서 보듯이 상황에 따라 ‘남’ 대신 외집단을 가리키며 사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6-7)에서 보듯이 늘 상호대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기 위해 내집단과 외집단의 대립개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3)이다.

(3) a. 내/네가 낯이냐?

b. 낯(들)이 싫어한다고 우리가 이 일을 그만 둘 순 없다.

여기서 화자와 청자가 함께 속한 내집단에 대립적인 외집단이 '남'이다. 즉, '남'을 사용함으로써 (3a)에서는 화자나 청자가 서로 다른 집단(외집단)에 속하지 않고 동일 집단(내집단)에 속해 있음을 수사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3b)에서는 '우리'라는 내집단의 구성원으로서 화자와 청자가 더욱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외집단에 흔들리지 말고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외집단을 가리키는 '남'의 쓰임은 타자 중심적인(others-centered) 집단주의 문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인들은 개인으로서 존재하기 보다는 자신이 속한 내집단을 대표한다고 생각하기에 내집단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외집단과의 관계에서 체면을 중시한다. 그래서 늘 타인(외집단)을 의식하는 말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남'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발화 (4)는 어린 아들이 가게 앞에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울면서 떼를 쓰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한 말이다.

(4) 창피하게 왜 그래? 낯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니?

여기서 어머니는 울며 떼쓰는 아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이 그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생각하도록, 즉 타인을 의식해서 행동해야 함을 주지시키고 있다. 어머니는 '남'을 사용함으로써 타인 즉 외집단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남'이 한국적 집단주의에서 외집단을 나타내기 위해 발달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서는 '남'과 비슷한 의미를 지닌 '다른 사람'의 경우 반드시 외집단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대화 상황에 따라서는 '남'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했을 때 '다른 사람'도 외집단을 가리킬 수 있다. 예(5)를 보면, (a)와 (b)는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5) a. 창피하게 왜 그래? 낯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니? (=4)

b. 창피하게 왜 그래?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니?

하지만, ‘남’과는 달리 ‘다른 사람’은 내집단과 외집단을 전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집단, 외집단을 분명히 구분하고자 하는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한다고 해도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6-7).<sup>8)</sup>

- (6) a. 내/내가 남이냐? (=3a)  
 b. 내/내가 다른 사람이냐?  
 (7) a. 남의 일기는 왜 읽고 그래? (=1d)  
 b. 다른 사람의 일기는 왜 읽고 그래?

예(6)에서 ‘남’의 경우와는 달리 ‘다른 사람’은 외집단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내집단과의 대립구도가 없어 ‘남’이 사용된 (6a, 7a)와 동일한 상황에서 (6b, 7b)는 사용될 수 없다. (6a)는 화자 또는 청자가 서로 다른 집단(외집단)에 속하지 않고 동일 집단(내집단)에 속함을 의미하고, (7a)는 내집단인 청자가 외집단 구성원의 일기를 읽고 있음을 질책하는데 그것이 화자의 일기라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쓰인 (6b, 7b)는 다른 해석을 가진다. (6b)는 ‘내/내가 과거와는 다르게 변했느냐?’는 해석이 가능하고, (7b)는 청자가 읽고 있는 일기가 화자의 일기라는 해석이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남’이 ‘다른 사람’과는 달리 외집단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다는 데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쓰임을 통해 구성원이 한 사람인 내집단이 허용됨을 보았듯이, 한국적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구성원이 한 사람인 극단적인 형태의 외집단도 허용되고 있다. 이것 또한 ‘남’의 쓰임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조금 전 예(7a)를 보면, ‘남’이 외집단을 가리키고 그 외집단의 유일한 구성원이 화자임을 알 수 있다.<sup>9)</sup>

8) ‘다른 사람’은 반드시 내집단, 외집단을 전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능한 상황에서 외집단을 나타내는 ‘남’으로의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현재와는 다른 모습의 자신이 되고 싶다는 (i)의 의미로 (ii)는 해석되지 못하고 오히려 어색하게 들린다. 이는 ‘남’이 외집단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 (i) 나는 다른 사람이면 좋겠다.  
 (ii) #나는 남이면 좋겠다.

9) 뿐만 아니라, 집단주의 문화를 가진 한국사회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회를 살펴봄으로써, ‘남’이 외집단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으로 발달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개인주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영미사회에서는 내집단과 외집단의 구분이 필요치 않았기 때문에 한국어 ‘남’에 상응하는 표현이 발달되지 않았다. 그래서 영미사회에서는 개개인의 독립성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대명사를 사용하여 ‘Why the hell are you reading my diary?’라고 하지, 한국어에서처럼 외집단 개념을 이용한 표현은 쓰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한국어에서의 '우리'와 '남'의 쓰임은 한국사회가 담고 있는 한국적 집단주의의 발현으로, 내집단과 외집단의 구분을 분명히 할 목적으로 내집단 개념과 외집단 개념을 나타내는 주된 표현으로서 발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제 3절에서는 이러한 '남'의 사회문화적 분석을 바탕으로, '남'이 보이는 화용적 쓰임을 살펴보기로 한다.

### 3. 화용 분석

본 절에서는 2절에서 설명한 '남'이 내집단의 상대개념인 외집단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는 사회문화적 분석을 근거로 부정 대명사 '남'의 지칭 현상에 대한 화용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한국어 화자는 '남'을 언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며, 청자는 이러한 '남'의 지칭을 어떻게 해석, 이해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3.1에서는 부정대명사 '남'의 지칭현상을 화용적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로, 즉 지칭대상이 특정인에게 한정되지 않은 비직시적 쓰임(non-deictic use)과 대화 상황에서 특정인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는 직시적 쓰임(deictic use)로 구분한다.

#### 3.1. '남'의 지칭: 직시적, 비직시적 쓰임

화용적인 측면에서, 부정대명사 '남'은, 2절에서 언급했듯이, 내집단에 대한 상대개념으로서의 외집단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러한 '남'의 지칭현상은 특정인에게 한정되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외집단을 가리키느냐, 아니면, 특정한 대화상황을 전제로 하여 특정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외집단을 지칭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비직시적 쓰임과 직시적 쓰임으로 구분한다.<sup>10)</sup>

부정대명사 '남'의 비직시적 쓰임은 화자가 '남'을 사용함으로써 내집단의 대립집단인 외집단의 구성원을 특정 집단이나 특정 인물에 한정시키지 않고, 내집단에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예(8)에서 '남'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비직시적 쓰임의 경우

10) '직시적(deictic)'이란 발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화자가 의도하는 지칭대상을 해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now, yesterday, here, there...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인칭대명사의 경우 직시적 쓰임과 비직시적 쓰임을 모두 가진다. 'you'를 예로 들면 'I know you will read this book.'에서는 발화 상황을 알아야 you의 지칭대상을 알 수 있고(직시적 쓰임), 'You should obey the law.'에서는 you는 일반적인 사람을 지칭하고 발화 상황이 이 지칭관계를 확인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비직시적)다. 이런 점에서 '남'도 인칭대명사와 같다.

이다.

(8) 남의 돈 천 남이 내 돈 한 푼만 못하다.

예(8)에서 ‘나’와 부정대명사 ‘남’이 내집단, 외집단을 가리키며 대립관계를 보이고 있다. 내집단으로서 1인칭 대명사인 ‘나’가 반드시 화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8)을 읽거나, 말하거나, 듣는 이는 누구든지 간에 관계가 없는,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sup>11)</sup> 이런 내집단이 설정이 될 경우, 즉 내집단이 누구이든지 간에, 이에 대한 대립 집단으로서 ‘남’ 또한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고, 내집단 구성원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외집단으로 설정이 되어 ‘남’의 지칭대상이 되는 것이다. 즉, 누구든지 간에 자기 돈만을 쓸 수 있고, 남의 돈은 아무리 많아도 쓸 권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돈이 아무리 적어도 그게 더 가치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이러한 부정대명사 ‘남’의 비직시적 쓰임은 특정한 상황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속담(9)이나, 교훈적인 말, 훈계, 충고 등에서(10) 많이 나타난다.<sup>12)</sup>

- (9) a. 남의 고기 한점이 내 고기 열 점 보다 낫다.
- b. 남의 눈 속의 티만 보지 말고 자기 눈 속의 대들보를 보라.
- c. 남의 떡에 설 지낸다.
- d. 남의 짐이 가벼워 보인다.
- e. 남의 집 금송아지가 우리 집 송아지만 못하다.
- f. 남의 흉이 한 가지면 제 흉은 열 가지다.
- g. 남 잡이가 제 잡이.
- (10) a. 행복한 일터는 남이 만들어 주는 게 아니다.
- b. 어떻게 할지 모르면 남이 하는 대로만 해라.
- c. 남에게 흉잡힐 일은 하지 않는 게 좋다.

11) ‘나’가 비직시적으로 쓰인 경우이다. 물론, 직시적으로 사용될 경우 화자 자신만을 지칭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외집단을 나타내는 ‘남’이 비직시적 쓰임을 가질 수 있다.

12) 비직시적 쓰임을 가지는 ‘남’도 발화상황에 따라, 직시적 기능을 가지고 특정인을 지칭할 수 있다. 예로 (9라)를 보면, 들고 가는 짐이 너무 무거워 허허대며 걷는 경식이 힘이들어 보이지 않는 창현이의 짐을 자꾸 쳐다 볼 때, ‘남의 짐이 가벼워 보이지? 창현이 짐도 똑같이 무거워.’라고 말을 할 수 있다. 이때 ‘남’은 창현이를 지칭하게 된다. 물론, 직시적 쓰임을 가지는 ‘남’의 경우도, 상황에 따라 비직시적 쓰임을 가질 수 있다.

부정대명사 '남'은, 인칭대명사나 지시어 등처럼, '남'이 사용되는 특정한 발화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 지칭대상을 결정할 수 없는 직시 기능(deictic function)을 가지고 있다. 이런 직시 기능을 가지고 사용될 경우, '남'은 발화상황에 따라, 외집단으로서 특정집단이나, 특정인(화자, 청자 또는 제 3자)을 지칭할 수 있다. 예로 (11)을 보기로 한다.

- (11) a. 당신이 뉘데 낯의 자식을 야단쳐!  
 b.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 낯 일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예(11a)는 식당에서 시끄럽게 떠들며 뛰어다니는 아이를 보고 청자인 A가 주의를 주자 그 아이의 어머니 또는 보호자가 A에게 한 말이다. 이 상황에서 '당신'은 청자 A로 내집단을 가리킨다. '남'이 가리키는 외집단은, 청자가 주의를 준 아이가 화자의 자식일 경우는 화자이고, 화자가 단순히 그 아이의 보호자일 경우는 그 아이의 부모가 외집단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남'이 누구를 지칭하는 지는 어떤 발화상황에서 (11a)가 발화되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

예(11b)는 화자에게 청자가 자신이나 또는 대화현장에 없는 친구 영수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 얘기하고, 도움을 청하는 상황에서 발화될 수 있다. 여기서 내집단은 화자이고 외집단은 청자 또는 영수로서, 이 외집단을 '남'을 사용하여 지칭하고 있다. 즉, 화자의 발화에서 '남'의 지칭대상은 청자 또는 영수이다. (11b)의 경우도, 발화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남'이 가리키는 외집단의 구성원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된다.

(11)에 있는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부정대명사 '남'은 발화상황을 고려해야 그 지칭대상이 결정될 수 있는 직시적 기능을 가진다. 부정대명사 '남'이 비직시적 쓰임을 가지든지, 직시적 쓰임을 가지든지 간에, 모두 화자가 설정한 내집단의 대립집단으로서 외집단이 존재하고, 이 외집단이 '남'의 지칭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 3.2. 화용 분석

본 절에서는 부정대명사 '남'의 다양한 지칭관계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화용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즉 화자는 내집단의 상대적 개념인 외집단을 가리키는 '남'을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하고, 청자는 이러한 화자의 '남'을 사용한 의도를 어떻게 추리하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화자가 ‘남’을 사용할 때, 화자는 ‘남’이 한국사회에서 내집단과 대립관계에 있는 외집단을 가리키고, 직시적, 비직시적 쓰임을 가지고 있음을 청자가 알고 있다고 전제한다. 더 나아가, 화자는 ‘남’의 발화상황에서 청자가 발화맥락과 필요한 모든 정보를 이용하여 내집단이 무엇인지를 추리하고, 외집단을 가리키는 ‘남’이 직시적 쓰임을 가지는지, 비직시적 쓰임을 가지는지 추리함으로써 ‘남’의 지칭을 찾아 화자의 사용의도를 추론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청자도 자신에 대한 화자의 믿음을 알고 있기에, 한국 사람으로서 자신이 가진 ‘남’의 사회문화적, 화용적 정보와 ‘남’의 발화상황 및 필요한 모든 정보를 이용하여 ‘남’의 특정 지시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특정지시대상이 누구인지를 추리하여 ‘남’을 사용한 화자의 의도를 추론하게 된다.

발화 (12)를 예로 들어, ‘남’의 지칭 결정 과정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 (12) 낚의 일에 참견마라.

발화 (12)를 듣고 청자는 화자가 어떤 상황에서 (12)를 발화했는지 생각하고, 화자가 생각하는 내집단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내집단에 대해 화자가 의도한 외집단이 누구인지, ‘남’이 비직시적 용법으로 쓰였는지 아니면 직시적 용법으로 쓰였는지를 추론해야 한다. 발화 (12)는 청자에게 훈계 또는 충고를 내리는 상황으로 청자가 곧 내집단이다. 만약 다른 사람이 참견하면 싫어하는 특정한 사람을 염두에 두지 않고 화자가 청자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할 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청자도 이것을 아는 상황이라면, 청자는 화자가 기술하고 있는 사태와의 관계 속에서 ‘남’(외집단)은 내집단인 청자 이외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비직시적 용법으로 쓰였음을 추론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청자는 자신의 일이 아닌 일에는 끼어들지 말라는 해석을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발화 (12)는 위와 같은 일반적 맥락이 아닌 특정한 상황, 즉 청자가 화자나 제 3자인 순이의 일에 참견하는 것을 보고 이를 못 마땅하게 여기는 상황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상황 정보를 화자가 알고 있다고 믿을 경우, 청자는 화자가 의도한 청자에 대한 외집단, 즉 ‘남’의 지칭이 청자 이외의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는 비직시적 용법으로 추론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청자가 화자나 순이의 일을 참견하는 상황을 알고 있는 화자가 ‘남’을 사용하여 굳이 청자가 참견하지도 않은 사람들에 대해 미리 걱정하고 신경써야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특정 상황에서는

화자가 의도한 외집단, 즉 '남'의 지칭대상이 청자가 참견하고 있는 화자나 순이라고 청자는 추리하고, 화자가 바라는 것이 화자 자신이나 순이의 일에 청자가 더 이상 참견하지 않는 것이라고 추론한다.

위에서 보듯이, 부정대명사 '남'은 화자가 어떤 상황에서 그것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비직시적 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직시적 용법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기에, 청자는 발화맥락과 발화내용이 기술하는 사태로부터 '남'의 지칭을 추론해야 한다.

그렇다면, 외집단을 나타내는 부정대명사 '남'을 화자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까? 담화 현장에서 화자는 내집단과 외집단의 구분을 분명히 함으로써 두 집단 간의 거리감을 의도하여(즉 두 집단의 구성원들이 이질적임을 명확히 하여) 자신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의사소통전략으로서 '남'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화자가 내집단에 속하고 '남'이 가리키는 외집단의 구성원이 청자일 경우, 청자가 화자와 동일한 내집단에 속할 수 없거나, 내집단에서 청자가 축출되었음을 의도함으로써 청자와 화자 사이의 거리감, 소원함을 강하게 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예로 (13)은 늘 며느리를 못 마땅하게 여기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로 관계를 개선해보려는 며느리 말에 시어머니는 '남'을 사용함으로써 며느리를 가족이라는 내집단 구성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의도하고 있다.

(13) 며느리: 어머니, 왜 자꾸 그러세요?

제가 잘못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시어머니: 낯이야 잘못이 있건 말건 내가 알 바 아니지.

며느리: 어머니, 제가 왜 낯이에요? 너무하세요.

며느리가 자신의 잘못이 있다면 고쳐서라도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해보려는 의도임을 파악하고, 그러한 의도는 가족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을 사용하고 있다. 즉 시어머니는 가족이라는 내집단의 구성이고 청자인 며느리를 동일 내집단의 일원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즉 외집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며느리에 대해 관심이 없음을 의도하고 있다. 며느리는 이러한 시어머니의 '남' 사용 의도를 추론하고 자신도 '남'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족이라는 내집단의 구성원으로 생각하지 않은 시어머니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예(13)의 경우와는 반대로, '남'을 사용함으로써 화자 자신이 외집단이 되

어 내집단 구성원에 대한 불만 등을 표출할 수 있다. 예로 (14)는 아내가 남편에게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섭섭함을 토로하는 발화이다.

(14) 당신은 남의 속도 모르고 ....

부부는 서로가 남이 아닌 동일집단 구성원이다. 그러나 아내인 화자는 발화 (14)에서 ‘남’을 사용함으로써,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먼저 자신을 이해해줄 거라 믿고 있었던 남편과 더 이상 동일한 집단에 속하지 않음을 의도하고 있다. 그리하여, 화자는 자신의 속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외집단)처럼 남편도 그런 외집단의 한 구성원으로 여기고 있음을 의도함으로써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섭섭함을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

내집단과 외집단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의도하기 위해 ‘남’을 사용하는 이러한 전략은 ‘남’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여 그 차이를 비교해 보면 분명해진다. 예(15-16)의 (a)는 ‘남’이 쓰였고, (b)는 ‘남’ 대신 인칭대명사 ‘나’와 ‘너’가 쓰였다. (a)와 (b) 모두 동일한 상황에서 발화될 수 있지만, 화자의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외집단 ‘남’이 화자를 가리키고 내집단이 청자인 (15a)는 (15b)보다 청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더 강한 화자의 질책을 보여주고, 외집단 ‘남’이 청자를 가리키는 (16a)는 (16b)보다 청자에 대한 화자의 무관심을 더 많이 보여준다.

(15) a. 남의 일기는 왜 보고 그래?

b. 내 일기는 왜 보고 그래?

(16) a. 미안하지만, 지금 내가 남을 도와 줄 여유가 없어.

b. 미안하지만, 지금 내가 너를 도와 줄 여유가 없어.

‘남’이 쓰인 예(15a, 16a)는 청자와 화자가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집단에 속하게 되고, 이는 청자와 화자 사이의 거리감을 전제하기 때문에 (15a)는 청자가 화자의 일기를 보는 행위의 부당성이 더욱 강조될 수 있게 되고, (16a)는 청자를 외집단으로 설정함으로써 거리감을 느끼게 하여 그만큼 관심이 없음을 강조한다. 반면 인칭대명사 ‘나’와 ‘너’를 사용한 (15b)와 (16b)의 경우는, 내집단과 외집단 구분에 중립적이기에, 화자와 청자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15b)는 청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단순한 질책을, (16b)는 (16a)에 비해 청자에 대한 화자의 관심과 미안함을 보여준

다.

지금까지, 외집단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부정대명사 '남'의 지칭이 어떻게 추론이 되는지와 화용적인 측면에서 '남'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 4. 맺음말

'남'의 지칭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문화적인 분석과 화용적 분석을 하였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남'은 한국적 집단주의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우리'가 가리키는 내집단에 대한 상대개념으로 발달되었음을 보였다. 화용적 분석에서는 '남'의 두 가지 쓰임, 비직시적 쓰임과 직시적 쓰임을 설명하고, '남'의 지칭이 어떻게 추론되는지 보였고, 그리고 내집단과 외집단의 구분을 분명히 하여 두 집단 간의 관계를 재정립함으로써 발화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가 끼칠 수 있는 기대 효과는 3가지, 의사소통 이론 개발 측면에서, 한국문화의 이해 측면에서, 그리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화자가 발화 순간 특정 목적을 가지고서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어떤 대화전략을 채택하는 지를 설명하고, 다른 한편으론, 청자가 그러한 화자의 목적을 어떻게 해석, 이해할 수 있는 지를 부정대명사 '남'을 통해 설명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를 대화 상황 전체로 확대한다면 의사소통이론을 개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한국문화 측면에서는, 한국 사회문화의 근간이 되는 집단주의를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으로서 외집단을 가리키는 '남'을 설명함으로써, 한국문화의 핵심적인 개념을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측면에서, 언어를 문화와 함께 가르침으로써, 즉 한국문화를 담고 있는 많은 한국어 표현들을 문화와 더불어 설명할 수 있도록 연구를 확대한다면,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문화적 충돌에 의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남기심, 고영근. (1985). 표준 국어 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 신기철, 신용철. (1981). *새 우리말 큰사전*. 서울: 삼성출판사.
- 이어령. (2002).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이원근, 김슬옹. (1999). *말과 사회*. 서울: 세종문화사.
- 이한규. (2001). '-것 같-'의 화용 의미. *텍스트언어학* 10, 269-291. 한국텍스트언어학회
- 윤재학 (2003). 단수적 용법의 '우리'. *언어와 정보* 7(2). 1-30. 언어정보학회.
- 최준식. (1997). *한국인에게 문화는 있는가*. 서울: 사계절
- Green, Georgia M. (1989). *Pragmatics and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ion.
- Grice, H. 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Syntax and Semantics 3: Speech Acts*. ed. by P. Cole & J. Morgan. 41-58. NY: Academic Press
- Samovar, L. A., & R. E. Porter. (2001). *Communication Between Cultures*. Wadsworth
- Bonvillain, Nancy. (2003). *Language, Culture, and Communication: The Meaning of Messages*: Prentice Hall.

이한규

경희대학교 영어학과

449-70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1

전화번호: 031-201-2252

email: hglee@khu.ac.kr

Received: 30 Sept, 2005

Revised: 14 Dec, 2005

Accepted: 15 Dec, 2005